전남도, 귀농·귀촌인 도전 응원·지역 발전 기원

완도서 어울림대회 열어 화합·교류의 장 펼쳐

전라남도는 14일 완도 청해진스포츠센터에서 '2025년 귀농어귀촌인 어울림대회'를 열어 귀농·귀촌인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전남귀농어귀촌인연합회(회장 김민주)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새로운 시작, 함께 만드는 전남의 미래'를 주제로 열려 전남 귀농·귀촌인과 가족, 관계 공무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색소폰과 가야금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개회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신우철 완도군수, 김양훈 완도군의회 의장, 신의준 전남도의회 의원, 귀농어귀촌인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귀농어귀촌인 도지사표창,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시상식에서는 김지혜 여수시 귀농어귀촌협회 사무국장 등 5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이성상 완도군 귀농어귀촌협회장 등 6명에게 전국 및 도 연합회장 공로패가 각각 수여됐다.

특히 귀농어귀촌인의 도전과 전남도의 발전을 함께 염원하는 의미로, 주요 내빈이 무대에 올라 '농업·농촌의 희망', '전남 귀농어귀촌인', 'OK, NOW 대한민국 AI 수도'라는 문구가 적힌 세 개의 박을 터트리며 새로운 출발과 전남의 도약을 기원했다.

김영록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귀농어·귀촌은 전남의 인구 활력과 지역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라며 "전남에 정착한 보람을 느끼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유치 등 전남에 생긴 기회를 잘 활용해 전남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앞으로도 더 많은 분이 전남으로 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주 전남귀농어귀촌인연합회장은 "회원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전남 귀농귀촌의 새로운 미래를 열자"며 "새로운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장에는 시군 귀농귀촌인이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 전시 부스가 운영돼 다양한 지역 농산품이 소개됐으며, 참석자는 전시장을 함께 둘러보고 지역 간 교류의 시간을 보냈다.

또 '어울림 한마당'에서는 귀농어귀촌인의 재능공연과 장기자랑이 펼쳐져 웃음과 화합의 분위기 속에 행사가 마무리됐다.

(사)전남도귀농어귀촌인연합회는 2016년 설립돼 현재 4천751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염선호 기자

서구, 상상력과 친환경 어우러진 '감탄히어로' 조성

치평동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15일 아동친화거리 축제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15일 치평동 감탄히어로(운천어린이공원 일대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소통과 만남의 장인'아동친화거리 축제'를 개최했다.

'감탄히어로(路)'는 서구가 추진 중인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말 아동친화거리로 조성됐다. 명칭은 치평동의 브랜드(BI) '감탄마을'에서 따온 '감탄'과 'Hero(영웅)', 'Here(여기) + 路(길)'의 의미를 담아 아이들이 탄소 줄이기 실천의 영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거리는 친환경 요소와 아동 친화 콘텐츠로 채워졌다. 중흥2단지아파트 담장에는 폐플라스틱 병뚜껑 10만 개로 만든 150m '십만양병 벽화'가 조성됐고, 광주신세계에서 폐유니폼 1만 벌로 제작한 '리뉴 벤치' 10개도 곳곳에 설치돼 감탄마을의 철학을 더했다.

또한 거리에는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한 바닥놀이 그림, 상징 조형물, 야간 경관조명, 미디어파사드까지 설치됐다. 특히 미디어파사드는 작품 앞에서 5분 이상 머물게 한다는 '5분의 미학'으로 이이남 미디어 아티스트가 어린왕자의 세계를 섬세한 영상으로 풀어냈다.

지난 5월 개장한 '운천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했으며 서구에서 가장 큰 미끄럼틀과 27m 길이 짚라인 등이 있어 아이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15일 열린 '아동친화거리 축제'는 감탄히어로(路)의 의미를 담아 ▲ESG 캔버스 그림그리기 ▲석고 방향제 만들기 등 친환경 체험 부스 ▲서구 아동친화도시 캐릭터 선정을 위한 현장투표 등 아이들과 가족 단위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운영됐다.

/박석우 기자

광주시, 외국인 유학생·시민 함께하는 축제 연다

18일 5·18민주광장서 '광주 외국인 유학생의 날' 개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1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2025 광주 외국인 유학생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국제교류 축제로, 광주를 세계와 소통하는 도시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행사는 '전남대 국제교류의 날'과 함께 진행되며,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광주대학교, 호남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동강대학교 등 지역대학 7곳이 참여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조선시대 과거시험 문화를 체험하는 '대한외국인 N행시 백일장' ▲유학생활 경험을 공유하는 토크콘서트 ▲케이팝(K-POP) 랜덤플레이 댄스 ▲예선을 통과한 10팀의 장기자랑 경연 등으로 구성됐다.

폐막식에서는 유학생들이 '5년 뒤 광주에서의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타임캡슐을 봉인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광주에서의 추억과 미래를 함께 그리는 시간을 갖는다.

이와 함께 행사장 내 플레이그라운드 존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 5개국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 추억 놀이터와 팀 대항 레크리에이션이 마련돼 참여자 간 자연스러운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또 ▲유학생 취업상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비자 상담, 유학생활 안내(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홍보 등 관계기관 부스와 각 대학의 체험·홍보 부스 등도 함께 운영된다.

광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대학 간의 연대와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날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광주의 열린 마음을 보여주는 행사"라며 "광주가 세계 속의 교육·문화 교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교류의 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광춘 기자

북구,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아동학대 예방의 날 맞아 17일 꿈나무사회복지관서 기념행사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다가오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오는 17일 오후 4시 꿈나무사회복지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학대 예방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법정기념일로 지난 2007년부터 매년 11월 19일에 맞춰 기념해오고 있다. 이번 기념행사는 '모두의 아이, 모두의 책임. 아동학대 없는 북구, 우리 함께해요!'라는 주제 아래 아동 기관 관계자,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계획이다.

행사는 기념식과 부모교육 등 총 2부로 운영되며 9세 미만 아동과 양육자가 함께 참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기념식은 ▲아동학대예방 선언문 낭독 ▲기념공연 ▲희망의 바람개비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

선언문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양육자·아동·아동보호기관·공직자의 역할들이 담겼으며 행사 당일 그룹별 대표 1인이 함께 선언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부모교육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에 필수적인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올바른 자녀 양육법을 놀이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진다.

교육은 참여 아동을 연령별 두 개 그룹으로 나눠 놀이치료사, 유아체육강사 등 아동 전문가들이 맞춤형 강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행사 당일에는 아동학대 신고 방법 안내 캠페인과 체험·먹거리부스 운영 등 부대행사도 병행될 전망이다.

/송현근 기자

1면에서 이어짐

현역 평가는 12월에 시작해 1월 하순 완료될 예정이고, 광주·전남에선 최대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4~5명, 광역의원 15명 가량이 '공천 살생부'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당원 모집, 당비 대납엔 철퇴를 가했다. 시·도당이 신규 당원 신청자 30만 명 중 40%가 넘는 13만여 명을 부적격자로 분류, 입당 신청을 반려한 가운데 최근 중앙당이 현직 군수와 지지율 1위 후보 등 3명의 출마자격을 박탈하고 전수조사에 나서, 결과에 따라서는 경선 구도가 요동칠 수 있는 상황이다.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선 공천 잡음과 독점 폐해, 대선 패배 후유증, 의제 실종으로 민심이 등을 돌리면서 37.7%라는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던 4년 전 기억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내년 지선은 정권 연장의 바로미터이기도 해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대 여당에 맞선 야권은 '버거운 승부'보다는 '의미 있는 승부'에 방점을 찍고 혁신 행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독점구조의 창조적 파괴"와 "지방선거 활성화를 위한 정치적 메기"를 자청했다. 성비위 파동의 후유증을 털고, 혁신 공천 등을 통해 다인(多人)선거구를 집중 공략해 호남 발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SNS에 광주를 콕 집어 "광역의원 20명(비례 제외) 중 11명이 무투표 당선됐다"며 "경쟁이 없으니 공약을 만들거나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새 지도부 선출에 나선 혁신당은 광주·전남에서 20%대 정당 지지율과 전남 4~5개 단체장, 광주 광역의원 2~3석, 기초의원 20%를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해 영광군수 재선거 야권 3파전에서 30%대 득표율을 올린 진보당도 내년에 전남 기초단체장 2명, 광주·전남 광역의원 10명을 목표로 민생 챙기기와 현안 파고들기 등 혁신 행보에 여념이 없다. 최근 광주시 공무원노조위원장 출신 이종욱 민노총 광주본부장이 광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등 선수들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도 '정당지지율 20%'를 목표로 전체 선거구에 자당 후보를 출마시킨다는 전략이다. 광주에서만 기초단체장 1석, 광역의원 지역구 1석, 비례 1석, 구의원 5석이 목표다. "변화와 혁신, 민생 우선 정치로 시민의 대안정당이 되겠다"며 당세 확장과 외연 확대를 위한 특위를 설치하고, 핵심당원 간담회, 민생탐방과 봉사활동, 서명운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승원 기자